

2002년 석유정책의 방향



이 유 종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장〉

1. 머리말

「뉴 밀레니엄」시대를 준비하느라 지구촌이 온통 떠들썩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뉴 밀레니엄」의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2001년은 다사다난했지만 희망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이 지배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2001년이 어렵고 힘들었기에 우리는 2002년을 더욱 희망찬 기대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작금의 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글로벌」이니 「디지털」이니 「초고속 변화」니 하는 말들을 자주 듣고 또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대에 「석유」라는 말은 별로 어울리지 않거나 케케묵은 구식 단어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석유는 아직도 지구촌 경제와 생활을 지탱하는 최대의 에너지원이며, 특히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중요성을 한시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

2. 2001년의 회고

가.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수급 동향

2001년은 예기치 않은 미국 동시다발테러 발생 및 미국의 아프간 군사공격 개시 등으로 국제석유시장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된 시기였다. 국제석유시장의 불안정성은 국제유가의 심한 변동성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상반기까지 고유가를 지속하던 국제유가는 전쟁 프리미엄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년특집

하고, 세계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석유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2001년 4/4분기에는 배럴당 18~19달러 선에서 안정되었다.

〈 국제유가 동향(Dubai유 기준, \$/b) 〉

2000 평균	2001년				연평균
	1/4	2/4	3/4	4/4	
26.27	23.75	25.18	24.06	18.40	22.85

국내 석유소비(2001.1~11)는 국내 경기침체의 지속, 연료전환 추세에 정착 등으로 IMF 외환위기가 도래했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0.7% 감소세를 보였으며, 원유 도입량도 4.3% 감소(금액기준으로는 도입단가 하락으로 13.1% 감소)하였다. 석유제품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1.9%, 1.1% 감소하였으며, 수입사의 휘발유·등유·경유 판매점유율은 2000.11월의 4.3%에서 2001.11월에는 6.5%로 증가하였다.

나. 주요 추진시책

우선,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만일의 석유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유업체 등으로 「석유수급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국제석유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예상되는 전쟁양상 및 국내외 석유시장 상황을 감안한 3단계 시나리오별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차 추경에 비축예산 500억원을 확보하여 비축유 200만배럴을 추가 구입하고, 유가완

충자금의 적립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크게 제고하였다.

아울러, 원유의 안정적 확보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원유 도입선을 중동외의 지역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총리·산자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의 중동순방 및 주요 산유국과의 에너지장관 회담 개최 등을 통해 산유국과의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2001. 5월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이 이루어짐으로써 석유위기 시 세계 주요 석유소비국과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사적계약방식으로 개선하고, 석유 전자상거래시장 개설 확대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석유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외에 2001.11.26~12월 말 기간 중에는 동절기 가짜휘발유 유통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를 마무리하고, 정관 개정을 통해 동 공사의 공정성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수입사 증가 추세에 따라 정유사와 수입사간의 공정경쟁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다 강화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의 자율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에너지 안보태세 강화, 시장실패 보정,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rule)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3. 2002년 정책환경 전망

가. 세계 석유수급 및 국제유가 전망

금년도 국제유가는 세계 석유수급에 큰 변동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배럴당 20~22달러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OPEC이 금년 1월 1일부터 일일 150만배럴을 추가 감산키로 합의하였지만 세계석유수요 회복 지연, 非OPEC 산유국의 지속적인 협조 여부 및 OPEC 회원국의 쿼터 준수 여부의 불확실성, 국제석유시장에의 선반영 등 요인으로 단기간내의 유가 급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OPEC의 실물 감축량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상반기에는 현재의 유가수준인 배럴당 18~20달러선을 유지하고, 본격적인 감산효과와 세계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가서야 배럴당 22~24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경기 회복속도의 가속화 및 OPEC 및 非OPEC의 감산 협조체제 지속, 중동 정세 불안 등 국제유가 불안요인은 잠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나. 국내 석유수급 전망

국내 석유소비는 국내경기의 회복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수급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에너지 소비구조의 고급화, 연료전환

추세의 정착 등으로 소폭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원유 도입량도 국내 석유소비 및 국제유가 변동추이의 영향을 받아 소폭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석유제품 수출입은 국내경기 회복 가시화에 따라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 추세 지속

정부는 90년대 중반 이후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석유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시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 및 등록제로의 전환, 가격 자유화, 석유수출입업 허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석유산업 대외개방 등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석유위기 대응, 석유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제만이 존치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의 자율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에너지 안보태세 강화, 시장실패 보정,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rule)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장감시자·조정자 역할, 품질관리 및 가격 안정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작

금의 시대에 석유부문에

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발전을 주도할 있는 주체로서 업계와

협회 등 관련 단체의 倍前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석유공사내에 「국제유가 동향 점검반」을 운영하여 세계 석유 시장 및 국제유가 변동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4. 2002년 석유정책의 방향

가.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

우선, 정부의 석유비축량을 추가 확보하여 비축 지속일수를 현재의 31.5일에서 35일로 크게 증가시킬 계획이며, 동 비축유 추가 구입은 가능한 한 저유가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IEA 기준 및 최근의 석유소비 변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3차 석유비축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이다.

예산지원과는 별도로 여유 비축시설을 활용한 공동비축사업 확대, 비축유 활용을 통한 수익확보 등으로 비축유 증량 확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비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축의 경제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존 비축유 중 현행 품질규격에 맞지 않는 비축유에 대해서는 순환저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축유의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석유공사의 석유위기정보망을 활용하여 위기 대응책을 점검해 나가고, 유가완충자금 적립규모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산자부 및

나. 원유의 안정적 확보기반 확충

에너지 석유의존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석유는 아직도 총 에너지소비의 50%를 넘는 최대 에너지원이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원유의 장기계약 도입물량이 60%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원유도입 중동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원유도입선 다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산유국과의 에너지장관 회담 개최 등을 통해 산유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IEA 가입 활동과 국제에너지포럼(9월, 오사카) 등 석유 관련 각종 국제회의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회원국 및 참가국간의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다. 석유수급 안정 및 유통체제 개편

중단기 석유수급 전망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난방용 등유·경유 소비가 급증하는 동절기의 석유수급 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일시적인 수급 차질 발생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사적계약방식 주유소 상표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계 자율의 상표 표시제 문화를 존중하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석유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석유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핵심 석유 물류수단인 송유관 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송유관 초기 건설단계에서의 차입금 과다로 적자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하여는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동공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라. 공정경쟁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석유업계간의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감시자·조정자 역할을 보다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특히 가격담합·덤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석유사업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적극 대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산업 및 기업문화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소비자 편익보호를 위해 가짜휘발유 등의 유통 및 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경찰 및 시·도 등과 특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석유사업

법에 의한 행정처분, 형사고발은 물론 세무당국에도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우범주유소에 대한 중점관리와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신생 연료유의 대두와 환경기준 강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석유제품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석유의 고급에너지화 및 청정연료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5. 맺음말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작금의 시대에 석유부문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발전을 주도할 있는 주체로서 업계와 협회 등 관련 단체의 倍前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업계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혁신적 자기발전」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한 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업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의 감시 기능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 업계는 국회, 언론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유가를 적정수준으로 인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업계는 국제유가 인하분이 적기에 국내유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소비자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